

전남대병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

재경부 조사...국립대병원 중 유일
전년비 '국민행복·신뢰' 큰 폭 상승
정신 병원장 "최상의 서비스 최선"

전남대병원이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다 올해부터는 기존 3등급 체계가 5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으로 세분화돼 평가 차별력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28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2일~3월11일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13만8천533개 표본을 조사했다.

전남대병원의 종합 고객만족도(PCSI 2.0)는 전년 대비 0.3점 상승했다. 이중 성과 영역에서 ▲국민행복 ▲신뢰 지표가 각각 25점, 3.9점 등

가장 큰 폭으로 올라 눈길을 끌었다.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전달 품질 ▲환경 품질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달 품질의 세부 항목인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고객 케어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학생 임상 및 위탁교육'이 9.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임원 및 외래 만족도 역시 전년보다 모두 상승했으며, 민간 수탁 과제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평균과의 비교에서도 전남대병원은 전 항목에서 평균을 상회했다. ▲지속가능성 ▲상호작용 ▲불일치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타 기관과 큰 격차를 보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두터운 신뢰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전 직원이 환자 중심 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2주년 기념식에서 (왼쪽부터)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이완식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 직원대표 류은솔 간호사가 '씨앗심기 퍼포먼스'에 참가해 씨앗에 물을 주며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공>

'다시, 피어나다'...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2주년 기념식

'씨앗심기 퍼포먼스'로 도약 강조

첨단 인프라 등 기반 암 치료 선도

이완식 병원장 "환자 중심 가치 실현"

화순전남대병원이 개원 22주년을 맞아 최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다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환자 중심 미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

28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기념식에는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 유관기관장, 임직원, 교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기념사와 축사, 씨앗심기 퍼포먼스, 기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명을 심다, 희망을 키우다'를 주제로 한 씨앗심기 퍼포먼스는 병원의 새로운 도약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완식 병원장은 "22년간 생명을 지켜온 시간은 또 다른 시작"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환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진료 정상화와 의료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빈치 로봇수술과 방사선 치료 장비 등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난도 암 치료 역량 강화하고, 디지털 항암센터와 양성자 치료 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 의료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화순전

남대병원은 지난 22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암 전문병원으로 성장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이끌어왔다"며 "AI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를 통해 '아시아 암 허브'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대학교는 병원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은 "다시, 피어나다"라는 슬로건처럼 시련을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정밀의료 기반의 세계적 암 치료 중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우수부서에는 소화기센터, 중앙지원팀, 영양팀, 홍보팀이 선정됐다. /기수희기자

전남대병원, 지방 첫 '궤도형 죽종절제술' 성공

순환기내과 증제시술팀

'혈관 석회화 병변' 제거

전남대병원이 지방 병원 최초로 관상동맥의 석회화 병변을 제거하는 첨단 치료법인 '궤도형 죽종절제술(Orbital Atherectomy System-이하 OAS)'에 성공하며 심혈관 시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8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순환기내과 증제시술팀(안영근·김주한·홍영준·심두선·김민철·조경훈·현대용·안준호·임용환·오석 교수)은 최근 혈관 내 석회화가 심해 치료가 까다로웠던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OAS를 적용해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쳤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혈관 벽에 칼슘 등이 쌓여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현상으로, 주로 고령층이나 당뇨,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흔히 나타난다. 석회화가 심하면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위해 삽입하는 스텐트가 제대로 퍼지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OAS는 다이아몬드 코팅된 기구가 혈관 안에서 타원을 그리며 회전해 딱딱한 석회화 병변을 선택적으로 갈아내는 최신 공법이다.

OAS는 부드러운 혈관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딱딱한 석회 부분만 골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회전 죽종절제술'과 달리 시술 도중 기구를 교체하지 않고도 회전 속도 조절만으로 다양한 굵기의 혈관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 시술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시술을 집도한 안영근 교수는 "이번 OAS 도입을 통해 석회화가 심해 치료에 난항을 겪던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의료 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 고품행사를 진행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세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카드(웨건·폴딩카드)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 여부는 오는 6월5일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정보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기수희기자

화순전남대병원, 비뇨기암 로봇수술 1천500례 돌파

호남 최초 도입 후 단일과 기준 첫 성과

화순전남대병원이 비뇨기암 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비뇨의학과가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비뇨기 로봇수술 1천500건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0년 호남에서 처음 로봇수술을 도입

한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비뇨의학과 단일 진료과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병원은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시작으로 관련 수술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2019년 최신형 다빈치 Xi 장비를 도입한 이후 수술 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연간 수술 건수는 2021년 266건, 2022년 290건, 2023년 288건으로 늘어나며 300건에 가까워졌고 2024년 일시적 감소 이후 2025년 254건으로 회복

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에는 단일과 수술이 가능한 다빈치 SP 장비를 도입해 한 개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하는 방식까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수술 방법의 선택 폭과 정밀도가 함께 높아졌다.

전립선암 수술이 약 50%로 가장 많지만, 신장암 부분 절제술도 약 28%를 차지했다. 부신절제술 등 후복막 고난도 수술도 60건 이상 시행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300건 이상의 안정적인 수술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